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예수 부활은 실제이고 역사다!

4월 17일 부활주일, 성찬식 통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에서 출발한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속에 실존했으며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신 사역을 통해 확실한 증거인 부활의 표적을 주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실제이며 성경 말씀이 실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환영했던 날이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근신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한다.

광림교회는 지난 3월 2일 성회수요일을 시작으로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부활절 전날인 4월 16일(토)까지 사순절로 지키며 사순절 갈보리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내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회개와 금식과 절제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다. 특히 4월 15일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는 역사를 기억하며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금요 성찬예배>를 드린다.

부활 주일인 4월 17일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며 1부예배부터 5부예배까지 본당 대예배실에서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린다.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별 성찬키트를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성찬키트를 교회에서 미리 받아 각 가정에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알이 부화되어 새 생명이 태어나듯 이날 광림의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달걀로 이웃과 나누며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저녁예배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부활절기념 음악예배로 부활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또한 광림미술인선교회에서는 <2022 부활절 기념 TOLLE LEGE전>을 4월 17일(주일)부터 5월 22일(주일)까지 장천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지경을 넓혀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전시를 한다.

부활생명의 복음의 의미를 담은 신앙고백적 작품들이 한국화, 서양화, 사진, 섬유예술,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게 된다. 총 18명의 광림미술인선교회 회원들이 이번 부활절기념전에 참여한다.

구원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을 느낄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이다.

올해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영광스러운 소망과 거룩함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변영혜 기자

2 광림의 강단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라
3 광림 스토리 우크라이나 선교사 후원금 전달
4 하나님을 만나다 총력전도주일
5 다음세대 청년부 총력전도
7 믿음의 현장 광림의 심방선물
8 특집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마가복음 6장 41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마 14:21, 막 6:35~44, 눅 9:11~17, 요 6:1~15)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을 통해 그 원리를 배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한순간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 받고자 하는 일차원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우둔한 생각까지도 받아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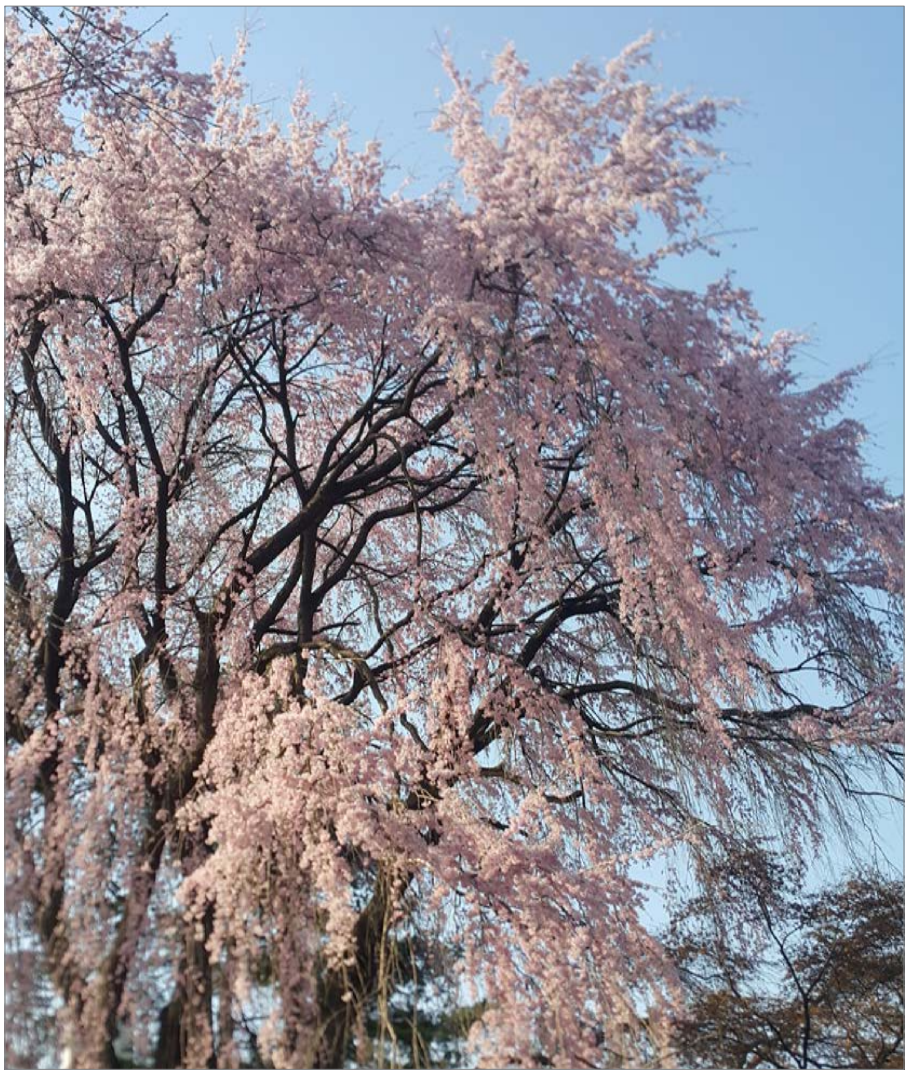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긍휼'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며, 마치 창자가 뒤틀리듯이 저들의 곤고함과 배고픔, 영적인 갈급함을 보고 아파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공생애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할 때는 항상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며 빈들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들만 오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도 잊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에 날이 저물어 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걱정하시고 피곤하여 지친 사람들을 보며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책임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하심을 마음에 새기어 삶에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44절

35.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39.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0. 떼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41.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42. 다 배불리 먹고 43.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둘째,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37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여기는 빈 들이고 돈도 없습니다. 오천 명을 먹일 음식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굶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살피시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만 오천 명이었으니 대략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에게 한 조각의 빵을 준다고 하여도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대답했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먹을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며 제자들의 계산과는 다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여 있던 사람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경험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성장이 있고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멈춰있는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믿음의 삶은 지금 있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부족하니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드리면 그 모습을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겨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듯이, 예수님은 하찮아 보이고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8장(복의 근원 강림하사)을 작사한 로버트 로빈슨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던 로버트는 런던으로 건너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지 휫필드 목사님의 영향으로 지난 일을 회개하고, 찬송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그의 신앙도 차츰 식어갔고 이전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한 여인이 시집을 읽다가 말을 건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훌륭한 시를 읽어보신 일이 있나요?" 그 여인이 읽고 있던 시는 로버트 자신이 지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시였습니다. 그 여인은 "저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시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었어요"라고 간증하면서 그 시를 반복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로버트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한없이 작거나 보잘 것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우크라이나를 위한 감리교본부 평화기도회

선교지 복구를 위한 후원금 전달식, 광림교회 3만 불 후원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죽음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기도회가 3월 30일(수) 감리교본부교회에서 선교국(위원장 김정석 감독, 광림교회) 주관으로 열렸다. 기도회 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 받고 우크라이나 선교지 복구를 위한 후원금도 전달했다.

광림교회에서 3만 불을 후원하며 시작된 모금은 36개 교회, 16명의 개인 후원자,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서울연회 등에서 1억 7천여만 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아졌다. 광림교회는 우크라이나 선교 후원금 외에도 최근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울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과 성도들이 마련한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을 위로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현지 상황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군 진영에서 20km 떨어진 선교센터에는 현재 400여 명의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는 두 대의 차량으로 피난민들을 국경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구호품을 싣고 와서 현지인들에게 나눈다고 했다. 센터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던 50가정의 교인들이 피난길에 올랐으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은 떠나지 않고 센터와 각자 집 지하에서 기도하며 피난민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400만 명 이상이 피난했고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대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들에 의해 재건될 것을 확신한다며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김정석 감독은 격려의 말씀으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한국감리교회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내려지길 소망하고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 감리교회는 침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현지인들을 돕고 세워가는 사역에 감리교회가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힘내 달라고 권면했다.

이상희 기자

〈해외선교지 순방 - 3〉

선을 넘다! (Cross the Line)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의 난민 선교

사순절 기간 동안 선교에 대한 묵상 중에 한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incarnation) 하셨습니다. 이슬람 신앙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대한 알라가 어떻게 100%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로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롬 5:8) 이렇듯 하나님의 선교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세상의 선을 넘은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끝없이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2011년 3월 세계에서 최초로 2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터키 안디옥으로 국경선을 넘어 왔습니다. 만 11년이 지난 현재 터키에서는 약 400만의 난민이 있고, 그중 360만이 시리아 난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터키입니다.

2000년에 세워진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는 현재는 안디옥의 지역교회로 완전히 자리잡고 공식적인 선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교회로서 안디옥 개신교회는 시리아 난민들이 선을 넘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무슬림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은 그들이 국경선을 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내 박희정 선교사는 한국에서도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무슬림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주일 예배로 초대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주중에는 이들에게 터키어 아랍어 영어 등을 가르치는 이레센터를 설립하여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 개신교회는 현재 터키 공동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이슬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신앙의 선까지 넘어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안디옥 개신교회는 시리아 국경지역의 난민 캠프까지 선을 넘어서 지난 10년간 계속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이슬람 선교라는 선을 넘어 이방선교가 최초로 시작된 사도행전의 안디옥에 터키 안디옥 개신교회를 봉헌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해주시는 광림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호 선교사(터키안디옥개신교회)

포토 뉴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진행되고 있다.

3월 찬양의 밤
3월 27일 주일 저녁 대예배실에서 찬양의 밤을 진행했다.

대예배실 카펫 교체
성도들의 헌신으로 대예배실 3~4층 카펫이 새롭게 교체되었다.

담임목사 동정

3/29	트리니티성서대학원
	서울남연회 목사안수자 교육
3/30	동국제약 신사옥이전예배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회
	및 선교후원금 전달식
	수요 치유의 신학
3/31	한국군선교연합회 임원간담회
4/2	서울남연회 교사대회
4/3	주일예배
	광림복지재단 이사회
4/7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기념조찬기도회
	나세남 선정교회 교육
4/8	서울남연회준회원교육
4/10	종려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4월 24일, 새가족 초청 총력전도 주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4~15)

15년 전 4월, 따스한 햇살 아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던 총력전도 때이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다니엘기도회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을 받은 후 전도대상자를 만났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복음을 전했다. 그 대상자는 광림교회에 등록했고 새가족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후 서서히 하나님을 알아갔다. 그동안 그분의 삶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속회, 선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그 성도는 가족들까지 구원하였고 딸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출가하는 축복을 받았다.

4월 총력 전도, 영혼 구원의 축제

코로나 이전에 4월이면 광림교회 밀레니엄 광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선교구별로 천막을 치고 새가족을 위한 각양각색의 선물과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새가족이 등장할 때마다 설레임으로 맞이하였다.

광장에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넘쳤다. 또 등록한 새가족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새가족실에서 8주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되었고, 담당목사와 전도사에게 인도되어 속회와 선교회로 연결시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바뀐 신앙생활, 전도로 회복하자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통제로 대면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으며,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로 성도간의 교제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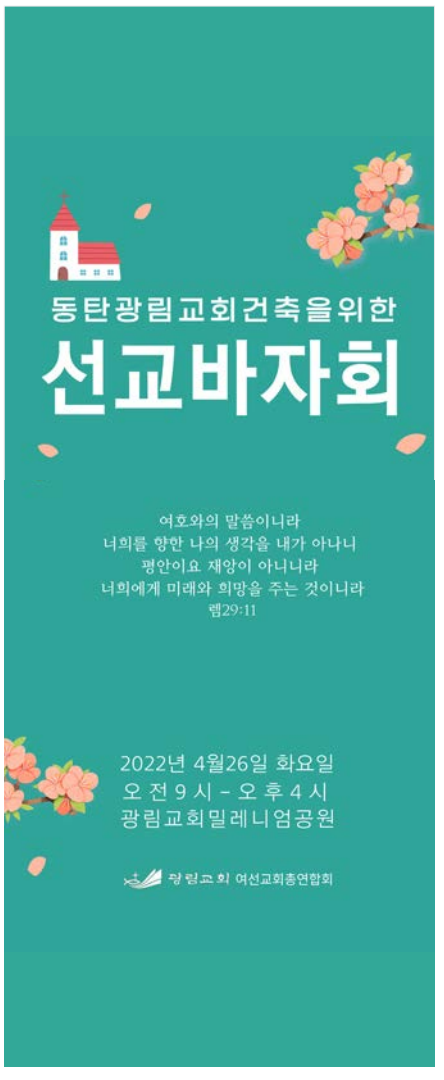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기도생활을 회복하고 성령충만을 받을 때이다. 우리는 코로나19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전도해야 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4월은 총력전도의 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16%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동탄광림교회 성전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

여선교회 임원들, 김치만들어 선착순 100명에게 판매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위원장 이화열 권사)는 지난 3월 26일(토) 애찬관에서 김치 담그기를 했다. 이는 4월 26일(화)에 열릴 <동탄광림교회 성전건축을 위한 선교바자회>의 일환으로 시작한 첫 번째 행사이다.

이화열 권사는 "좋은 재료로 철저한 위생 관리하에 맛있는 김치를 담아 성도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2022년 바자회를 시작했고, 선착순으로 주문받은 330킬로를 완판하고 교역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김치를 드릴 수 있어 감사했다. 이번 바자회는 소박하지만 실속 있는 성도들의 만남의 장으로 쓰임 받길 기도하고 있다. 바자회의 수익금 전액은 동탄광림교회 성전건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치 담그기에 참여한 우유정 집사는 "올해 여선교회 임원이 되고 처음으로 김치 담기에 참여했습니다. 전날 선배 임원들이 김치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씻고 다듬어주신 덕분에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합심하여 힘을 모으고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힘은 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라고 했다.

여선교회총연합회는 2022년 <뜨겁게 전도하여 채우고 세우는 여선교회>의 표어 아래 동탄광림교회 성전건축에 큰 힘이 될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잡았다. 크게는 3가지 방향으로 첫째, 개체 선교회의 예배회복을 통한 선교회의 부흥. 둘째, 총연합회 임원들의 헌신의 씨앗을 본으로 보이고. 셋째, 선교바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전건축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선교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밀레니엄 광장에서 야외바자회를 열지 못했다. 대신 여러 번의 미니마켓 형식 등 온라인 바자회로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을 시도해 선교사명을 감당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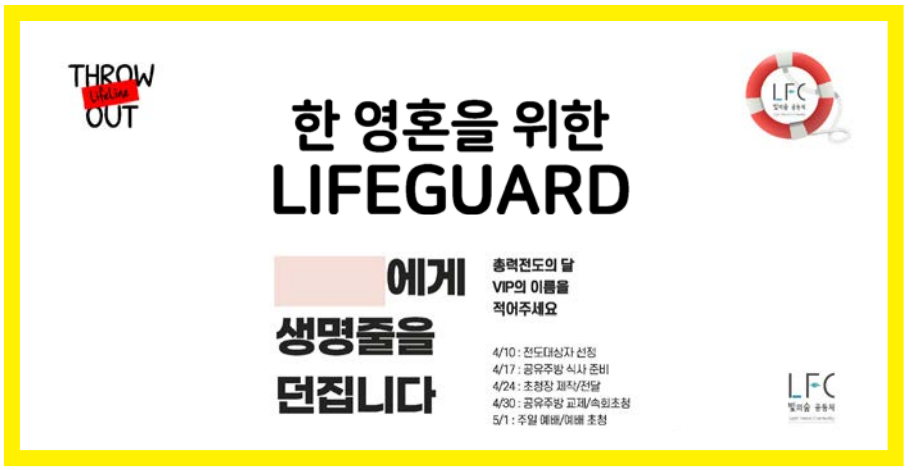
4월 26일에 열리는 바자회는 본당 밀레니엄 광장에서 성도들의 기증품과 여선교회 임원들의 애장품, 개체선교회의 아나바다, 테이크아웃용 포장음식 등을 판매하며, 전도대상자를 위한 소규모 문화공간도 기획중이다.

광림교회 여선교회는 매년 바자회 수익금으로 해외와 국내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백명순 기자

〈생명줄 던져라! Throw Out The Life Line〉

청년부 상반기 총력전도 프로젝트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총력전도의 달을 맞아 〈생명줄 던져라! Throw Out The Life Line〉 라는 주제로 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5월 1일 주일을 D-day로 잡고, 4월 한 달간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잠언 24:11)라는 말씀을 붙들며, 전도대상자 VIP와 속회 안의 잃은 양을 예배와 속회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4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 총 5가지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1주차부터 5주차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명을 건지는 Life Guard로 부름받은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임명식), VIP를 섬길 방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또한 그들을 다시금 초대하는 초청장과 편지를 전달하고, D-day 하루 전날인 4월 30일 토요일에 공유주방으로 초대하여 속회원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며 예배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청년부는 코로나 이후 흐릿해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단절된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외롭고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변치 않고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청년 2교구 박소현 속장은 "청년부 총력전도 기간을 통해 속회에서 잃어버린 양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진 청년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 하는데 있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청년들의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의 크신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청년 5교구 이동엽 속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교제의 즐거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고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아야할 생명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력전도 가운데 청년들이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와 거리가 멀어진 채 영적인 위협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스데반가족찬양단, 홀수 달 저녁 찬양의 밤 인도

3월 27일,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일저녁예배 드려

3월 마지막 주일인 27일 저녁예배시간에 남선교회총연합회(회장 박기연 장로)의 스데반가족찬양단이 주축이 되어 은혜로운 〈찬양의 밤〉을 펼쳤다.
찬양의 밤은 저녁예배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주일 저녁예배는 평소보다 15분 빠른 7시 15분에 시작하여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열게 하고 설교 후에 다시 찬양으로 마무리된다.

스데반가족찬양단은 말 그대로 남선교회총연합회 스데반 선교회의 가족들이 팀을 이루어 찬양을 하는 것이며 현재 10개 선교구에서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찬양단 내에서도 가족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제대로 참석이나 연습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찬송을 불러 주었다.

찬양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 헌 권사(30교구)는 "찬양단은 예배를 통해 스데반을 부흥시키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찬양단이 공연하는 날에는 스데반 전체 회원이 참석하여 이날 속회와 선교회를 함께 드리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2019년 춘계산상기도회 때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하였으며, 지난해에도 몇차례 저녁예배 때 찬양을 하였는데 미리 날짜를 확정할 수 없어 사전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이번에 정기적인 일정이 나왔는데 3월에 이어 5월, 7월 등 홀수 달 마지막 주일 저녁예배에 찬양단이 서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앞으로 단원들에게 보컬트레이너 도입 등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실력있는 찬양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남선교회에서는 여러 선교회 중에서도 스데반에 대하여 예산 지원이나 페스티발 개최 등 스데반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박기연 장로는 "스데반은 광림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되기에 남선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왔다. 선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스데반가족찬양단이 서는 날을 포함하여 스데반 회원들이 저녁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스데반 연령대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자녀는 따로 휴게실이나 사랑방 등을 마련하여 함께 돌보아 준다. 다같이 찬양을 하면서 소통도 하고 더불어 스데반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신앙 간증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청년3교구 95또래 이혜린 입니다. 지난 2월 청년부와 함께 다녀온 수련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아주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광림 키즈 출신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광림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그렇듯 한 공동체에 오래 있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얽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고, 저는 광림 공동체에 오래 머물러 있다보니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고, 아픈 날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얼어버렸고, 모든 활동이나 사역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상처, 아픔, 슬픔보다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다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복하는데, 나아가는데 저는 제자리라는 모습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과의 나눔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혜린 자매님, 얼음이 녹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녹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실 분이고, 녹는 과정일 겁니다."

얼음이 녹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녹아 액체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닌, 얼음의 모습에서 서서히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것. 아마 저의 얼었던 마음도 그 과정을 걷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여전히 얼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녹아서 흐르는 액체가 있다는 것.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완전히 녹아 흐르게 해주시는 분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유롭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혜린 속장(청년부)

환대(Hospitality)

- 목회현장 -

서정일 목사(광림아트센터)

기독교 영성에는 일반적으로 말씀묵상, 침묵기도, 그리고 예배 등이 있다. 이런 영성훈련(Spiritual Formation) 중에서 한국교회에서 실행은 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과 관심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에 비하여 좀 비중이 작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환대(Hospitality)이다.

환대는 창세기 18:1~15에서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정성껏 대접한 것에 그 근거를 둔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전혀 연고가 없는 세 사람을 발견하고 장막문을 달려나가 발 씻을 물을 주며 쉬게 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을 대접했다. 그러자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이 환대의 근거 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다.

광림교회는 이 환대에 대해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 관심을 가지고 앞서 나간다. 오래전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광림뉴스레터', 그리고 이미 2000년대에 다른 교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홍보실'이라는 기관을 신설하여 문화적인 컨텐츠를 환대와 연계하여 사역을 시작했다. 문화홍보실은 단순히 교회인쇄물만을 디자인하는 곳이 아닌 기독교 영성의 환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세상의 이웃들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이웃들을 환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기획했다.

그래서 실행되었던 문화 사역이 교회 주변 상점들과 연합하여 전문오케스트라를 초대하여 밀레니엄광장에서 매년 '야외열린음악회'를 열어 이웃에게 저녁에 쉼이 있는 삶을 제공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세계적인 합창단 '파리나무 소년합창단'을 초청해 수요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했다. 그 즈음 장천홀 개관기념으로 영국의 '킹즈 싱어즈(King's Singers)'을 초청하여 역시 무료공연을 진행하였다.

그 외 광림수도원의 에베소 광장에서 야외음악회를 열어 도심을 벗어난 자연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자연의 소리와 어우러진 음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음악회뿐 아니라 기독교문화 리플렛, '아이(eye)' 그리고 '작업(作業)' 지들을 발간하여 세상에 다가가는 문화 사역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거리의 시민들에게 교회 대예배실을 열어 축구경기를 관람하게 했고 함께 응원했다. 그리고 매년 정기공연을 열고 있는 '파워크리스천' 문화 사역 역시 환대의 일환이다.

광림교회와 광림아트센터는 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로 환대의 사역을 지속할 때 그분의 언약을 이 땅에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림서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광림서교회 총력전도의 달

광림서교회는 4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모든 성도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기도하며, 매주 주일 나눠드리는 전도 물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아파트 주차장 전도와 공원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교육 후 아파트 전도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전도를 신청해주신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하여 주차장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은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공원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에 참여하는 안재을 권사는 "매주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전도는 삶의 보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서영희 권사는 "전도할 수 있음에 너무 기쁩니다. 또한 함께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총력전도의 달,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광림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헌혈!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바른 신앙과 바른 고백은 바른 실천과 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광림교회 5대 전통 중에서)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헌혈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만 건(약 10% 수준) 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2.8일분으로 줄며 '주의'로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광림북교회에서는 4월 24일 총력전도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 사랑의 실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올해의 표어처럼 자신의 생명을 통해 필요한 이웃에게 아끼지않는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부활의 기쁨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9선교구

진정한 교회공동체를 위하여

9선교구는 3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웨슬리관 2층 사랑부실에서 춘계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사태가 생긴 이후 예배와 모임이 어려워졌으나, 이런 때일수록 같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전이고 오미크론이 정점이었던 때에 50여명이 모여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2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새로 바뀐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광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가정과 일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이 시대에 빌립보교회와 같이 모범적인 교회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했다.

이날 모인 성도들은 교회공동체의 본질적 사명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신앙과 협력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교구별 시간을 가졌다.

9선교구 연합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회를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이며, 이를 계기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향후 9선교구 스데반 모임이나 하절기 야외예배 등의 활동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주태 권사(9선교구)

대심방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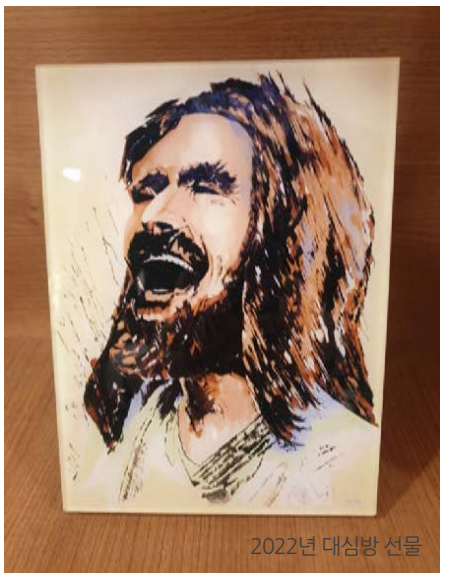
〈광림교회 대심방 선물〉

"어릴 적 대심방 때면 집안 도배를 하셨던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저는 도배까지는 못하지만 며칠에 걸쳐 이불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대청소해요."

광림교회 목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심방목회다. 심방이란 '방문한다', '돌아본다'는 뜻이다. 기독교 복음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참된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이다. 심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의미이다.

심방 중에서도 특히 '대심방'은 1년에 한번 온 가족이 함께 심방 받는 것을 말한다. 광림교회는 매년 선교구별로 대심방을 진행한다. 대심방에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르지만 기대와 설렘, 정성된 마음만은 하나다.
대심방을 받을 때는 먼저 시간을 구별하고 집안 환경을 깨끗이 정돈해야 한다. 하나님을 맞는 마음으로 집 앞에 마중 나가 목회자를 맞이하며, 예배 탁자를 두고 찬송곡과 기도제목, 정성껏 준비한 감사예물을 드린다. 가능한 한 가족이 함께 모이도록 해야 한다. 대심방 이후에도 주일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대심방 기도제목에 합당한 믿음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1979년
첫 대심방 선물


2022년 대심방 선물

것,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나 신앙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또 심방을 통해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광림교회는 1979년부터 매년 대심방 심방선물을 드리고 있다. 최초의 심방선물은 교회전경을 부조로 만든 기념물로, 현재 광림 헤리티지 & 비전 홀에 전시되어 있다.

심방선물은 매해 교회를 기념할 만한 것들로 제작되어 각 가정에 전달되며,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곧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심방선물은 광림수도원과 비전랜드에 있는 조각상 미니어처와 여러 종류의 십자가, 성구 액자 등이다.
올해는 교회 로비에 있는 〈웃으시는 예수님〉 성화를 아크릴 액자로 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웃으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뜻이다.

이선아 기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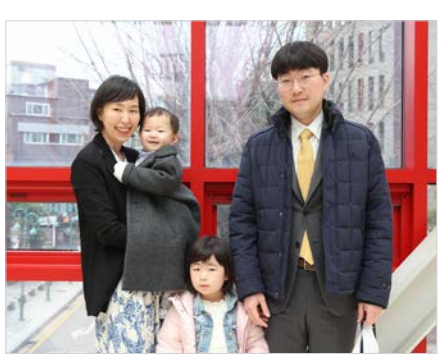
3월 27일 주일, 3부예배에서 총 7명의 유아들이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유아세례를 받았다.

최시안 부: 최성령 모: 조아라

정시온 부: 정하권 모: 정혜민

이태리 부: 이현석 모: 정하음

장라온 부: 장진원 모: 문아름


이정민 부: 이용재 모: 김나영

하성민 부: 하진구 모: 원은원

정나나 부: 정종호 모: 홍정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7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3장 16~17절

세례 요한의 사역(事役) 활동은 계속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설교에 요단강으로 내려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소문은 갈릴리까지 알려졌다.
예수는 나사렛의 집에서 평화로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서른 살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목수였다. 예수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후 나사렛에서 사해로 떠나 요단강에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군중 사이에 함께 섞여 있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의 외치는 자'이다. 이사야는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예수는 요한에게 나서 세례를 받으려 하였다.

"내게 세례를 주시오."

그러나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는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요한의 말에 대답하였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의 요청에 따라 세례를 주었다. 예수와 요한은 곧 강으로 들어가 세례를 진행하였다.

▲ **초원의 성모_** '벨베데레의 성모'라고도 불리며, 안정감 있는 삼각 구도로 성모 마리아와 어린 예수, 어린 세례 요한이 초원을 배경으로 잘 포착된 작품이다. 성모 마리아의 붉은 상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푸른색 치마는 교회를 상징한다. 자신의 상징인 털옷을 입은 어린 세례 요한은 후광을 지닌 성스러운 존재인 어린 예수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라파엘로의 작품.**

세례가 끝나고 물에 올라오자 그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의 머리 위에 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 **세례받는 그리스도_**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천재 예술가들의 스승이었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작품이다.
이 작품이 유명한 것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도제 시절 그린 그림 때문이다. 열네 살 아들의 재능을 알아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아버지 피에로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게 한다. 정지된 예술 작품에 동작의 섬세함을 표현하던 베로키오의 가르침을 받은 레오나르도는 어느새 스승을 능가하게 되었다. 레오나르도는 섬세한 붓질로 흑백을 표현하는 '드레이퍼리 습작'을 훈련하며, 그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인 '스푸마토 기법'을 개발했다.
베로키오와 협업으로 그린 이 작품에서 레오나르도는 그림 왼쪽의 천사를 그렸는데, 이를 본 베로키오가 충격을 받아 '다시는 붓을 잡지 않겠다'라며 결심하고, 조각에 열중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작품.

광림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옥이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신희경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선아 이정순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으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